

중로 청소년들 , 문화로 우정 쌓아가요

2025 중로 청소년 문화교류 시리즈 행사 장춘서 가동



▲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는 중로 어린이들

‘2025 중로 청소년 문화교류 시리즈 행사’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길림성 장춘시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는 ‘청춘과 함께하는 길림 여행 (感知吉林·青春同行)’을 주제로 랑국의 200여명 청소년들이 문화로 교감하며 우정을 쌓았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로 청소년간 교류에 생동감과 깊이를 더했다.

14일 개막식후 중로 청소년들은 길림무형문화유산전시센터 전문가의 지도 아래 ‘동북호랑이 소품 만들기’, ‘어피화 제작’, ‘경극 가면 그리기’ 등 전통 수공예 체험을 진행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소통을 경험했다. 특히 ‘수공예 제작 + 참여형 체험’이라는 형식은 청소년간 감정적 공감을 형성하며 이후 이어질 일련의 행사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현장에서는 길림성의 문화와 관광을 소개

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선보였다. <길림 안녕>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홍보 영상 등이 상영됐으며 로어로 제작된 문화관광 홍보 책자도 배포돼 참가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전통 복식인 한복 (汉服)을 입고 무형문화유산전시센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한복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길림의 전통미와 정취를 몸소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당일 오후, 로씨야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길림성과과학기술관과 장영세기성 (长影世纪城)을 방문했다. 일행은 첨단기술의 신기함과 영화산업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다. 로씨야에서 온 소년 안드레이 (安德烈)는 “이번 여행에서 길림 사람들의 친절함과 이 땅의 열정, 독특한 온기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길림의 발전과 과학 기술도 체험하였다. 이곳은 정말 좋

다.”라며 엄지를 내밀었다.

또한 이번 ‘중로 청소년 문화교류 시리즈 행사’의 하나인 ‘중로 청소년 무술교류’ 행사가 15일 장춘시 진행됐다. 랑국 청소년들은 서로 배우고

시연하며 깊은 우정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로씨야 한 청소년은 “유도도 좋지만 경기장 밖의 우정과 경기장 안의 열정 넘치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16일, 중로 청소년들은 장춘시 해방대로소학교를 방문해 다채로운 교류 활동을 가졌다. 랑국 청소년들은 운동장에서 즐거운 체육 경기와 활동을 함께했으며 도서관에서 붓을 들고 랑국 문화 정수를 담은 작품을 창작했다. 행사후 한 중국 학생은 “로씨야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다. 손짓과 미소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많은 새 친구를 사귄 것 같다.”며 국경을 초월한 진솔한 우정과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문화교류 계열 활동은 중로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외교’의 장”이라며 “향후 동북아 국제교류의 대표적인 청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스포츠 활동, 현장 방문 및 문화 체험을 통한 ‘2025 중로 청소년 문화교류 시리즈 행사’는 중로 청소년간의 문화교류와 우정을 도모함으로써 랑국 인문 협력에 새로운 활력과 내실을 더하게 될 것이다.

/ 손맹번기자



▲ 개막식에서 중국 학생이 무형문화유산 경극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서 선보인 길림의 사계절 매력

장백산·후지산 관광 협력 강화기로

6월 11일, 길림성문화및관광청, 도표중국문화센터, 주도교 중국관광사무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사계절, 매력적인 길림’ 문화관광 홍보 교류회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길림성과 일본의 문화관광 부문, 기업, 언론매체 등 관련 업계 대표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홍보교류회는 ‘정확한 연계, 실질적인 협력’을 방향으로 랑측 관광기업간 교류 플랫폼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길림성한국국제여행사유한회사 (吉林省环球国际旅行社有限公司)와 일본 N35 창제교류주식회사 (日本 N35 創製交流株式会社), 연변태달국제여행사유한회사 (延边泰达国际旅行社有限公司)와 POLO AIR 일유주식회사 (POLO AIR 日遊株式会社)가 각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행정준문화민족사업발전유한회사 (前郭县鼎润文化民族事业发展有限公司)도 ZORUHARA 주식회사 (ZORUHARA 株式会社), 광원무역유한회사 (广源贸易有限公司)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 협약 기업들은 랑측 관광시장 개척과 관광자원 상호보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의 융합은 국경을 초월한 연결고리이며 예술 창작은 우정을 전하는 다리이다. 일본 서예가 다바타 가쓰토시가 쓰토시는 오래동안 중국 전통문화를



▲ 교류회 현장



▲ 일본 서예가 다바타 가쓰토시가 서예 작품을 길림측에 기증하고 있다.

깊이 연구해왔으며 특히 길림의 자연과 인문 경관에 각별한 애정을 품어왔다. 그는 이날 행사장을 특별히

방문해 직접 서예 작품을 창작하여 길림측에 기증했다. 이에 길림성 문화및관광청은 중국 공예미술 대가 팽조술이 제작한 송화연 (松花砚)을 선물로 전달하며 길림 문화의 정수로 답례했다.

주도교 중국관광사무소 주임 구양안은 “중일 랑국은 지리적으로 린접해있고 오랜 시간의 문화교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관광개 왕래가 활발하다.”며 “이번 행사는 길림이 일본 입국 관광 시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문화관광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

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더 넓은 플랫폼을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국제관광과 과장 사이토 다카시는 길림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높이 평가하며 “길림성은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자연의 보고로 알려져있다.”며 “장백산의 웅장한 자연경관과 겨울 송화호 강변에서 펼쳐지는 무송 (雾凇)의 환상적 풍경은 사진만으로도 깊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스키와 온천 등 겨울 관광 프로젝트도 주목받으며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장 주변에는 ‘장백산 철공예’, ‘장백산 만복 전지’ (剪纸), ‘만족 전통 자수 공예’, ‘당시 경락 조질 치료법’ (唐氏理筋), ‘차간초 어피 공예’ 등 무형문화유산 체험존과 길림사진 전시구역이 마련되어 일본 래빈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현장에서 진행된 문화 체험을 통해 일본측은 길림의 문화적 깊이를 더욱 입체적이고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관광자원 홍보를 넘어 길림이 ‘국제 관광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려는 바 길림의 ‘백산송수 (白山松水)’가 앞으로 더 널리 세계에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명준기자



중일인 학지 서울서

중한 사회발전과 지방 관리 논의



▲ 심포지엄 현장 / 사책

제 2회 중한 사회발전및지방관리 비교연구 학술심포지엄이 6월 12일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12월 장춘시에서 동일 주제로 제 1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주민자치학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한국동아로인복지연구소, 길림대학교와 길림성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중국·한국·일본 3개국에서 50여명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중국측 대표단은 길림성사회과학계연합회 부주석 왕영 (王颖) 연구원, 길림대학교 동북진흥발전연구원 원장 병정 (邢正) 교수, 길림성사회과학원 부원장 곡련강 (郭连强) 연구원이 인솔하여 참석하였다. 왕영연구원, 곡련강연구원, 한국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주임 채수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현진은 축사에서 학술 및 인문 교류 강화와 사회발전 및 지방관리 증진에 대한 공동 념원을 표하였다.

한국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중앙대

학교, 주민자치학회, 부경대학교 비교연구 학술심포지엄이 6월 12일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12월 장춘시에서 동일 주제로 제 1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주민자치학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한국동아로인복지연구소, 길림대학교와 길림성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중국·한국·일본 3개국에서 50여명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중국측 대표단은 길림성사회과학계연합회 부주석 왕영 (王颖) 연구원, 길림대학교 동북진흥발전연구원 원장 병정 (邢正) 교수, 길림성사회과학원 부원장 곡련강 (郭连强) 연구원이 인솔하여 참석하였다. 왕영연구원, 곡련강연구원, 한국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주임 채수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현진은 축사에서 학술 및 인문 교류 강화와 사회발전 및 지방관리 증진에 대한 공동 념원을 표하였다.

년차 순회 개최 방침에 따라 래년에는 중국 장춘에서 제 3회 중한 사회발전및지방관리 비교연구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 손맹번기자, 왕휘, 류룡



제 5 회 중국대학생한국어동영상대회 개최



▲ 수상한 학생들

‘여행의 의미’를 주제로 한 제 5회 중국대학생한국어동영상대회 시상식이 6월 7일 항주 경산차문화공원 (径山茶文化公园)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각지 89개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 총 311 편의 작품을 출품했다. 그중 복단대학교의 형회천과 공지심 학생의 작품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 최우수상을, 절강외국어대학의 후아휘와 웅중정 학생의 작품 <문화의 다리를 만나다>와 흑룡강대학 위염과 적염 학생의 작품 <멈추지 않는 발걸음, 끝없는 성장>이 1등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외문과 아시아태평양전파센터, 절강성분과대학외국언어문화전통교육지도위원회, 항주시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항주사범대학과 절강성중한경제문화교류연구회에서 주관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여행의 의미’는 대학생들이 ‘여행’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여행 속에 담긴 깊은 의

미를 탐구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등상, 2등상, 3등상, 우수상, 우수장의력상, 인기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중 복단대학교 형회천과 공지심 학생의 작품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 최우수상을, 절강외국어대학의 후아휘와 웅중정 학생의 작품 <문화의 다리를 만나다>와 흑룡강대학 위염과 적염 학생의 작품 <멈추지 않는 발걸음, 끝없는 성장>이 1등상을 수상했다.

수상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이 무대 중앙 상을 받고 창작 소감을 나누며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중국대학생한국어동영상대회 조직위원회 주임 유춘희교수는 이번 대회에 대한 총평을 통해 참가 작품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계속해서 중한 인문교류에 적극적 역할을 하라고 젊은 학생들을 격려했다.

/ 인민넷